좋은 무화과의 복

성경말씀: 렘24:4-7

지난주: 두 종류의 무화과, 심히 나쁜 무화과: 남아 있는 자(죄악 속에서 뒹구는 자), 심히 좋은 무화과: 포로로 끌려가는 자,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어 다시 돌아온다.

고통의 근원: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남은 자 사상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시대에서 의인들은 대부분 고통을 당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이후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세상이 되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님의 말씀, 공의, 진리, 의리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호4:1, 진리, 긍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님이 논쟁하신다.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체 대중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시지 않는다.

언제나 소수의 정예 부대를 통해 이루신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Remnant)라고 한다. 총 92회, 그 개념이 여러 곳에서 드러난다.

남은 자(Remnant): 무서운 재앙 이후에 살아남아서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무리(사10:20-23).

남은 자 개념은 신명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신4:27-31; 28:62-68; 30:1-10) 대언자들은 아시리아와 바빌론 포로 생활과 관련해서 이 개념을 밝히 보였고 또 최종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의로운 남은 자들이 모일 것도 대언했다. 아모스와 이사야 역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했다(사1:9; 암5:14-15).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였고 또 반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 개념을 도입하였다(롬11:2-5).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을 남겨 두신다.

예수님의 공생애, 그분이 사랑하신 자들은 다 남은 자였다.

마태복음 5장의 8복 내용: 모두 의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u>좋은 무화과(남은 자)의 복</u>'

바빌론 포로들

여호야긴 왕과 만 명의 포로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갔다.

본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고통이고 저주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들을 남은 자로 여기고 다시 이 땅에 데려오신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인들이었다.

그 땅에 그대로 머물면 다른 사람들처럼 우상숭배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유다의 배도 중에도 늘 남은 자를 두신다.

아브라함 언약: 가나안 땅, 자손들, 다윗 언약: 메시아가 온다.

이 언약들을 이루려면 이들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 땅에서는 그 일이 안 되므로 70년 동안 강제 이주시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과의 분리(고후5:14-18)

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의 원인: 분리 실패

하나님의 법칙: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히12:5-11).

성도의 삶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한다.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고통과 고난은 징계이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를 데려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고통의 용광로로 들어감

예레미야가 낙심하자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네 가지 은혜

1. 좋은 무화과로 인정해 주시는 은혜(5): 나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사역을 맡기셨다(딤전1:12-16).

2. 보호해 주시는 은혜(6): 하나님 자신의 눈을 우리에게 고정하신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신32:10).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간 아이들: 15세 정도
단 1장의 다니엘(8, 20), 단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용광로), 두라 평야, 30미터 형상, 단 6장의 다니엘(사자 굴), 30일 동안 완에게만 기도, 하루 세 번 기도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

3. 극복하게 해 주시는 은혜(6): 다시 데려온다. 세우고 심는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
70년 포로 생활 이후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우상숭배 제거, 메시아, 사도 베드로, 바울
우리 민족, 일제 식민지 경험, 이제 바른 성경을 주셨다. 바른 성경, 바른 교리, 바른 구원, 바른 교회의 모델, 북한 핵 문제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줄 믿는다. <u>우리의 할 일을 하자</u>.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는다.

4.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유다 백성의 문제는 마음,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렘17:9). 이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마음은 곧 심장이다. 생명의 중추 기관이다. 심장 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1차 수술이 이루어지고 성령님에게 순종할 때 막힌 부분들이 뚫려서 늘 피가 잘 순환된다. 이 모든 일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데서 생긴다.

우리는 어떤 무화과인가?

남은 자로 산다. 그럼에도 언제나 죄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징계로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다.
고난을 담담히 받아들여라. 거기서 연단을 통해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1. 좋은 무화과로 인정받는다.
2. 보호해 주신다.
3. 극복하게 해 주신다.
4. 새 마음을 주신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섬기자.
바른 가정생활, 사회생활